

The background features a stylized illustration of two men. On the left is a king with black hair, a gold crown, a yellow tunic with a red cape, and a gold belt with circular patterns. On the right is a man with a beard, wearing an orange tunic and a matching headband. The background is composed of warm, abstract shapes in shades of yellow, orange, and red.

CBS가 만든  성경 채널
알림바이블 대본집

Ep.036

사사 에훗

(사사기 3:12~31)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의
많은 땅들을 정복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어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 땅’이라고 부르게 되었죠.

시간이 흘러, 어느덧 여호수아는
110살이나 됐어요.

이제 여호수아에겐 전쟁에서 용감하게
지휘할 힘이 남아 있지 않았지만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죽은 뒤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실 거란 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의 마지막 말이니 모두 잘 듣거라.
오늘 내 앞에서 너희는 분명히 선택하거라.
앞으로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길 것인지 확실하게 결정하거라.”**

백성들이 슬퍼하며 약속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오직 그분의 명령에만 복종할 것입니다! 엉엉엉..”**

백성들의 약속을 확인하고 나서
여호수아는 눈을 감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게 어디 한 두 번이었나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서 평화로운 시간이
이어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겐 번번이
나쁜 마음이 생겼어요.

“다른 민족들이 호시탐탐 우리 땅을 노리고 있는데.
그때마다 귀찮게 나가서 싸울 필요가 있나?
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테니까 전쟁에서
이기기야 하겠지만
그냥 편하게 좋게 좋게 가면 좀 좋냐구.”

**“그건 그래요. 그냥 우리 다른 민족들이랑 친하게
지내면 어때요? 맘에 드는 사람 있으면 결혼도 하고,
서로의 문화도 알려주고, 서로가 믿는 신도 소개해 주고요!
그렇게 재밌게 살자고요!”**

그렇게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잊어갔어요.

**다른 민족의 우상 앞에 절하고 그것을 섬겼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웃 나라 ‘모압’의
‘에글론’ 왕을 보내셨답니다!

에글론 왕은 체구가 몹시 뚱뚱하고
아주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저기, 저 가장 비옥하고 좋은 땅을
이스라엘 녀석들이 차지하다니.
더 이상 두고 볼수가 없구만.
어떻게든 내 땅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에글론 왕은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다른 나라 왕들에게 연락해서 힘을 모아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예전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돕지 않으셨고
그런 이스라엘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했죠.

이스라엘은 모압에게 점령당하고 말았고
무려 18년동안이나 에글론 왕을 섬겨야 했어요.
정말 치욕적인 시간이었죠.

**“우리가 어리석었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지만 았았더라면... 엉엉.”**

**그제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억해 났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해낼 지도자 ‘에훗’을 보내주셨어요.**

에훗은 에글론 왕에게 과일과 곡식, 가축을
바치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에글론 왕을 자신이 없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에훗은 어느날 몰래 칼을 만들어서
옷 속에 숨겼어요.

에훗은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칼을 뽑기 쉽게끔
오른쪽 허벅지 쪽에 숨겼죠.

“에글론 왕이시여. 오늘도 이스라엘이 왕께 바치는
음식과 가축을 가져왔습니다.”

“흠흠. 그래~? 알겠따, 어서 이제 가봐라.”

**“저... 그런데 왕이시여 오늘은 이것들 말고
정말 중요한 게 따로 있습니다.
아주 아주 아주 중요한 비밀 얘기이지요.”**

심심하던 차에 에글론 왕은 귀가 솔깃했어요.

**“비밀 얘기? 히히 비밀이라면 내가 또 못 참지.
여봐라, 이 자만 배배고 다들 나가거라!
어서어서! 휘이 휘이~”**

다른 신하들이 모두 나가고 왕과 단둘이
있게 되자 에훗이 왕에게 조심조심 다가갔어요.

“저... 중요한 비밀 얘기가 뭐냐면 말이죠...”

왕에게 귓속말하려는 척하면서!
에훗은 허벅지 쪽에 숨겨둔 칼을 뽑았어요!

정말 순식간에, 에훗의 칼이 에글론 왕의
몸을 관통했고 거대한 에글론 왕은 그 자리에서
쿵! 쓰러지고 말았죠.

에훗은 재빨리 방문을 잠그고 몰래 도망갔어요.

한편, 밖에 있던 에글론의 신하들은

**“거, 이상하다. 왕께서 왜 이렇게 안 나오시지?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 아냐?”**

**“헤헤. 일은 무슨 왕이 요즘 변비가 엄청 심하시더라구.
하기야, 평소에 그렇게 많이 드시니
용변 볼 때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겠나? 헤헤헤.”**

하지만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방 안에서는 인기척이 없었어요.

그제야 신하들은 문을 따고 방에 들어갔고
거기에는 죽은 왕이 쓰러져 있었죠.

성을 빠져나온 에훗은 곧바로
높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우렁차게 나팔을 불었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약속의 나팔 소리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이여, 나를 따르시오.
하나님께서 우릴 다시 도와주셔서
모압의 왕을 쓰러뜨리셨습니다!!”

기세가 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모아
모압을 공격했어요.

왕을 잃은 모압과 하나님께서 다시
함께하시는 이스라엘! 그 결과는 뻔했죠.

이스라엘은 손쉽게 모압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냈고, 그 뒤로 80년 동안
다시 이스라엘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에훗’처럼 나중에 이스라엘에
왕이 생기기 전까지 이스라엘을 이끌던 사람들을
‘사사’라고 불러요.

‘사사 에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사 중의 한 명이었습니다!